

지역 소식통



부안군보건소, 성인기 여성 대상 몸짱명품클럽 운동교실 운영

부안군보건소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지방율이 높고 만성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걷기운동 생활화를 통해 일상생활 신체활동량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몸짱명품클럽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2회(화·목요일 오전 10~12시) 실시할 계획이며 만 19~60세 여성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과 세라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등을 지도함으로써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 성인기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광주 하나로클럽서 신선 농산물 특판행사

정읍시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일환으로 지난 2일 광주지역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시는 이날 전남 광주의 하나로클럽에서 정읍의 대표 농산물인 씨없는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특별판매했다. 당일 현장에서는 씨 없는 수박(8kg 기준) 190봉, 토마토(2kg) 200박스, 방울토마토(3kg) 200박스가 판매됐다.

부대행사로 수박화채 만들기, 수박 조각 전시, 토마토 요리 시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읍의 농특산물 애용을 당부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대대적인 소비 촉진 활동도 펼쳤다.

김생기 시장을 비롯 전북농협 지역본부와 농협 정읍시지부, 원예농협,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농산물 판촉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 시민들은 "정읍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았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촉 활동과 판로 개척, 그리고 유통단계 축소 등에 노력해서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해 농가소득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새정부 출범 지역발전 대응

## 박우정 고창군수, 국정과제 반영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고창발전을 견인할 정책을 발굴하여 국정과제 반영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으로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4,000억',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부창 해저터널, 고창갯벌 해양생태벨트 조성, 서남해안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6,200억,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문수산 휴양·힐링 편백나무 숲 자연치유단지 조성 석정온천 치유센터 조성'에 900억 등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에 1조1100억을 전북도와 공조하여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 사업들의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전북도 중앙정부 등 공약과 관계되는 곳은 가리지 않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했으며, 특히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더불어

민중당 전북도당의 우수공약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이 전남·북 6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선공약으로 가장 먼저 가시화됨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전북도와 함께 문수산(고창)·축령산(장성) 편백 숲 공간 재창조사업(400억원)과 노령권 알차하이머·파킨슨센터 조성사업(400억원)을 추진키로 하고 공약 세부사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1일 전북도를 방문,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만나 노령권 알차하이머·파킨슨센터 사업은 노인질환 중 진료비 증가가 가장 높아 관련 의료산업의 육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거점 센터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공약 세부사업 확정과 보건복지부 예산확보에 공조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이어 전북도 산업진흥과장 등 경제당국자를 만나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북도 해역에 건설되고 있는 해상풍력과 연계해 전남도의 지역공약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과 연계를 검토 하는 등 반영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을 대통령과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해 국가예산 발굴과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가리지 않고 집중 방문해 고창 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보건소, 보건의날 기념식 열어

### 보건의료인 소통 한마당·명랑 운동회 등 진행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3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제45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후에는 보건의료인 소통 한마당도 진행됐다.

보건 의료인 관련 공무원과 관련 단체, 공공 의료기관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2017년 WHO 보건의 날 주제인 우울(Depression)/Let's talk와 연계한 '우울하세요? 극복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울하세요? 극복하세요'는 언제나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주변에 알리고 대화를 통해 해소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보

건의료 위생 관련 공무원과 관련 단체, 공공 의료기관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2017년 WHO 보건의 날 주제인 우울(Depression)/Let's talk와 연계한 '우울하세요? 극복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울하세요? 극복하세요'는 언제나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주변에 알리고 대화를 통해 해소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2부는 건강생활 실천대회와

명랑 운동회로 진행됐다.

건강실천대회에서는 각 지역의 건강생활 실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 건강체조와 건강댄스, 장기자랑 등도 펼쳐졌다.

이어 명랑 운동회는 유관기관의 협동게임과 팀별 단체게임 등 한바탕 유쾌한 소통의 장이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범사회적 우울증 예방과 우울증 해소를 '건강한 정읍,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건 의료인들의 의지를 다지고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의회, 15일간의 임시회 성료

### 추가경정예산 526억원 증액된 5454억원 최종 확정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2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의안처리결과를 보면 ▲고추종합유통센터(건물,토지,기계기구) 매입(승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제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국외병도시협의회 규약 동

의안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이 원안 가결 되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

## 맞춤형 복지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연지동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주민센터는 올해 초부터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연지봉사대 등 기반 조직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주 수요요청에 발췌된 세대를 찾아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한다.

주민센터는 이를 토대로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를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한 것은 모두 30여 세대이다.

특히 6월부터 매주 1회씩 독거노

인과 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10여 세대에 밀린전과 과일 등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한편 주민센터에 따르면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가구 당 5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 세대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를 원하고 있어 주민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안이 알려지자 지역 내 봉사단체인 연지봉사대(대장 허종성)에서 집수리에 적극 동참했다. 이로써 초과 비용 문제가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립박물관, 자유학기제 연계체험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립박물관이 중학교 1학년 대상인 자유학기제 연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계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연계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학생들에게 꿈을 찾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물관의 기원과 종류,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문학적 소양 관련 지식을 PPT로 소개한다. 또 진로 동영상 관람을 통해 박물관 관련 직업군도 알아본다. 더불어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정읍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알아본다.

2부에서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본다. 흙 드로잉과 토우 만들기, 천연염색, 북아트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일에는 배영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박물관은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물관은 이와 관련해 학교와 학급 단위로 신청 접수수를 받고 있다. 문의 전화는 시립박물관(☎063.539-6791)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의회, 일손 부족한 농가 돕기 나서

부안군의회가 부족한 일손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을 덜어 주었다.

지난 2일 부안군의회 오세용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명은 하서면 백련리 오디 재배 농가에서 오디 농가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일손을 지원 받은 농가는 "오디를 수확하려고 일손을 맞춰놓지 못해서 사정으로 인해 어긋나 큰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의원들과 의원들이 제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여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sanwine.com